

도시형 한옥주거지의 물리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특성변화

Change of Social Aspect Resulting from the Physical Changes of the Urban Traditional Housing

이 승 엽*

Lee Seung-Yeob

Abstract

Korean urban traditional housing abandoned by the social apathy promptly disappearing from our sight, or ruining. It tells that the strategies we are using today are impossible to fulfill socio-economic needs of residents here. So it needed to find out the strategies which can change this place better to live in. Consolidating the street parking lots for cars can be one of the important solutions to the area. By using cul-de-sac, after setting up small unit of communities, we will have chance to have a small public space, and at the same time it can help to set up our tradition of people's intimacy inside the community. Most people have their own cars, and the need of parking lots becomes more serious. So, a meeting place like public well in the past must replace parking lots. On the other hand, it is important to re-consolidate existing land to obtain appropriate land size for other uses. Today, the use of private space (house, private lots, etc..)and public space(streets, local offices) is very important. NIMBY (Not In My Back Yard) attitude should also be reconsidered. All these negative social aspects come from negative social relationship, thus we should consider them with care and deep understandings. The traditional housing of Korea should not be abandoned as slum, but this should be transformed in terms of the conservation since it is superior in its ecological and energy conservation aspect.

Keywords : Urban Traditional Housing, Social Aspect

주요어 : 도시형한옥, 사회적특성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전통주거 형식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오다가 1930년대에 이후로 산업화와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사회적 특성을 가진 집단주거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일반적 전통주거 양식과는 이원화 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한옥은 근대의 산업화의 물결 속에 무비판적으로 해체되고 파괴되어 우리의 전통성뿐만 아니라 전통한옥의 우수성조차 계승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일제의 강점시대를 맞았던 우리의 역사는 기존의 한옥주거지를 일본인들에게 수탈당 하면서 한층 더 그 전통성을 잊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20세기 초까지 대구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도시는 성(城)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공간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읍성내의 한옥주거지를 일본인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그곳의 거주자들을 읍성의 외곽으로 이주시켜 새로운 거주지를 조성하였다. 더구나, 일제가 우리민족을

보다 용이하게 통제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많은 주민들을 도시로 강제 이주시킴으로써 도시인구가 증가하여 집단주거지역이 더욱 더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일제의 수탈정책으로 인해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점점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주거지는 더욱 더 필지가 세분화되어가는 주거지 특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일제의 통치가 있던 후로 기존의 성곽을 철거하고 도시화와 정비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집단주거지를 강제로 형성하였지만 최초의 계획주거지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이다. 비록, 아픈 상처의 부산물로서 나타난 주거지이지만 근대화의 개발과정에서조차 관심 밖으로 물러나게 됨으로써 도시의 불량주거지역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는 것은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도시에 입지해 있는 도시형한옥¹⁾밀집지구는 일반적으로 개발의 관심에서도 멀어져

본 연구는 2005년 경주대학교 연구비지원사업에 의해 연구되었음
*정희원(주저자), 경주대 건축학부 전임강사, 공학박사

1) 都市型韓屋 : '韓屋'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생활양식이 반영되어 있는, 한식기와와 목조구조 양식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주거 형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도시형한옥은 특히 1930년대 이후 집장사들에 의해 건축된 한옥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명 '改良韓屋'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것들을 그 이전에 지어진 한옥들과 같이 여전히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의 특성이 담긴 주거형태로 간주한다.

있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에 제정된 법규에 의해서도 많은 제약을 받아서 적절한 개·보수를 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까지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많은 거주자들은 생활의 불편과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고 점차로 불량지구로 변모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가로망의 정비도 단순히 가로의 폭만을 넓히는데 주력하였을 뿐 주민들 간의 사회적 관계와 기존주택의 물리적 상태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는 가로로 계획되어 있어서 내부의 불량주택은 더욱 더 심화되는 현상까지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거주욕을 저하시키고 우리의 옛 산물인 전통적인 도시형 한옥주택은 그 존재가 사라져가고 있다.

이는 많은 사회적 요인의 변화 속에서 도시의 사회·문화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의 한옥지구의 개발은 도시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그 개발방향이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도시의 전통주거지역에 있어서 집이나 사유지와 같은 사적공간과 길, 동사무소 등과 같은 공공공간은 어떻게 개발되어야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공공을 위한 일이라든가 땅은 희생될 수 없다는 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지역 이기주의도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거주자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거주지에 있어서 사회적 요인들은 이주 조심스럽고도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대 도시형한옥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70년대 후반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많은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도시계획에서 사회적 요구에 의해 나타나는 도로의 생성과 같은 커다란 사회적 변인에 따른 도시형 한옥주거지의 변화양태를 분석하여 지금의 규제 일변도의 도시형 전통 한옥주거지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있어서 기초적인 연구의 자료로 제공하고 자 한다.

2. 연구의 전제 및 방법

1) 연구의 전제: 도시형 한옥

도시형 한옥은 위치에 따라 도심부 한옥 주거지와 도심 주변부 한옥 주거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도심부 한옥주거지는 대구의 경우 서성동 일대의 한옥 밀집지역으로 1920년경²⁾ 구대구(舊大邱) 읍성의 서소문로 서문의 서쪽 편에 인접해 있던 지역에 대규모 기와집과 일식집이 들어서면서 형성된 것을 들 수 있고, 서울의 경우

1930년대 초반까지 한성부 도성경계의 내부에 도심부 한옥 주거지를 들 수 있다. 이후 1936년 확장된 경성부의 경계의 사이에 형성된 도심주변부 한옥 주거지가 형성되었다. 도심부 한옥 주거지는 적어도 1920년대까지는 하나의 전답, 혹은 이와 유사한 대형 필지로 남아 있던 것이, 주거지로 용도가 변환되면서 점차 세분화되어 집단적으로 기와집, 일식집 등의 형태로 도시형 한옥 주거지가 형성되었다. 도심 주변부 한옥 주거지는 1934년 조선시기 계획령과 1936년 경성부의 행정구역 확장을 계기로 새로 조성된 근대적인 주거지에 형성된 도시형 한옥 주거지로 볼 수 있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현재 도심지에 위치한 전통한옥주거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그 전통한옥주거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사례 지역내 대상지의 필지, 가로체계 등 물리적 환경과 인문·사회적 환경을 분석하고 한옥 주거자들을 대상으로 한옥의 주거 실태와 한옥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옥주거단지의 이용형태 변화에 따른 평면 유형조사 및 동네의 전반적인 문제점 조사를 위한 관찰 조사는 교육된 조사원들에 의해 조사 대상지별로 실시하였다. 관찰조사대상 주거지는 주거대상지내 한옥주택으로서 비교적 전통주거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62가구를 선택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현지조사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사진촬영, 실측, 설문조사 등의 조사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설문조사는 26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옥주거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특성을 밝히기 위해 문항이 선정되었다.

설문조사의 표본은 실측조사에 참여하였던 62가구의 전체 거주자를 통하여 실시되었으며 수집된 설문지중 부실 표본 및 무응답 16개를 제외한 46매의 표본이 표집되어 분석하였다.

또한 도시형 한옥주거지의 물리적인 변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물리적인 변화 이전의 상황에서의 의식조사와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C.B.D.와의 거리와 단지 전체의 크기 등 연구 대상지와 유사한 한옥주거단지로서 본 조사지역보다는 한옥주거지의 물리적 변화가 비교적 적고, 기존 상업시설의 침투의 영향을 적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옥형태의 보존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주시 동부동을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3.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60년대 산업화와 C.B.D의 확장으로 인해 불량주택지구로 변모해가고 있고 전통 주거지역의 보존에 있어서 제도상, 정책적인 문제점을 간직하고 있는 도심지 혹은 도심주변의 한옥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과 새로운 개발방향을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바 공간

2) 1920년 근대화라는 차원에서 한옥이 본격적인변화를 겪게되는 기점이 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의식과 생활적인 측면에서의 근대화가 주거양식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다. 실학사상의 근대 지향성에의 영향으로 조선후기부터 주거공간의 특성이 차츰 변화되기도 했다. 신재역 외 「전통주거건축의 근대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권 1호.

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동 일대의 1930년대 이후 지어진 도시형한옥 밀집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II. 대상지의 물리적 변화

1. 대상지의 개요 및 배경

현재의 대구 서성로 일대는 1910년대의 전답이었던 곳으로 읍성의 서편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읍성이 허물어지고 기존의 읍성내의 주거지를 일본인들에게 수탈당한 뒤 새로운 주거지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구 서문과 남문 밖으로 주거지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서문 밖 주거지역은 부근의 서문시장과 약령시의 영향을 받아 그 형성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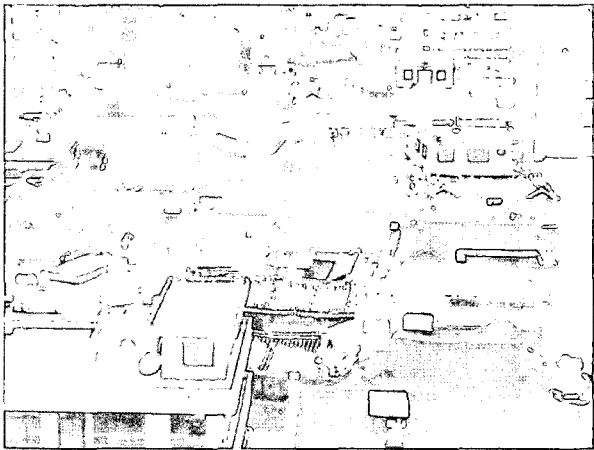


그림 1. 사례대상지의 경관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는 도시로 밀려드는 인구를 소화할 수 있는 주거지의 확보가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기존의 큰 필지가 작은 필지로 분할되어지는 특성을 보였는데 이때의 각각의 주호는 도심형 한옥의 특성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6.25를 거치고 1960년대를 맞이하면서 산업화가 시작되었고 전파, 통신 등의 매체를 통한 매스미디어의 확산으로 서구의 문물이 많이 접해지게 되었다. 이국적인 정취와 풍경, 새로운 건축양식 등은 기존의 한옥에서 느끼던 불편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동경하게 되었고 좌식 위주의 주거양식이 입식 위주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이러한 거주자들의 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집단적인 공동체 사회에서 각 주호의 기능적 해결 위주로 바뀌었다가 1980년대에 들어 가족구조가 본격적으로 핵가족화되면서 다시 하나의 상품가치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사회·문화적 변동기를 겪으면서 가치관에 있어서도 많은 혼란을 가지고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동안 주택기술의 발달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치중했던 시기와는 달리 현대에 와서

는 이웃간의 친밀감이나 동질감, 그리고 주변 환경(물리적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더욱 더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³⁾.

본 연구대상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적응하지 못한 채로 방치되어 주거지로서의 매력을 갖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제도적 미비로 말미암아 재화로서의 가치도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후된 설비를 법적으로 고칠 수 없게 했던 것과 인근의 상업지역과는 달리 작은 필지의 주택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개발의 속도나 방향이 정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도시의 한옥주거지에 대한 행정부의 무관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필지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의 물리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필지의 변화 그리고 가로체계의 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한옥이 도시형한옥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쟁과 해석이 있다. 도시건축분야의 틀 안에서 볼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좁은 필지, 가로와의 관계이다. 이를 결정하는 필지구획 방식과 원칙에 대한 해석은 도시조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도시한옥을 담고 있는 도시한옥주거지는 필지의 구획이 곧 집의 규모와 구축체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

본 단원에서는 연구대상지의 도시한옥주거지의 형성과정의 추적을 통해 필지의 구획 방식, 즉 필지가 어떤 단위로 구획되고 가로와 필지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⁵⁾.

1910년 이전에 작성된 지적도에 의하면 연구대상지는 모두 논과 밭의 전답으로 나타나 있으며 가로망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그림 2>.

그러나 그 이후에 1930년대까지 작성된 지적도를 보면 전답이 대지로 용도가 바뀌었으며 커다란 필지를 중심으로 골목길과 같은 가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그림 3> 보다 넓은 가로가 생긴 이후로는 가로에 면한 필지가 더욱 세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4>.

넓은 필지가 세분화되면서 각각의 주호에 다다를 수 있는 골목길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가로체계는 산업화가

3) 이러한 가치관은 가족구조와 사회구조의 측면 모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며 집을 선택하는데 가장 큰 고려사항은 기능적인 편리성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이웃간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성태원(2003), 『서울 삼청동35번지 도시한옥주거지 필지구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권 9호, p117.

5) 필지가 도시조직의 이해에서 중요한 것은 건축물과의 물리적 결합뿐만 아니라 건축물 구성체계의 기본적인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도시와 연결시키는 매개체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그 구성체계가 견고한 도시한옥을 담고 있는 주거지의 필지의 구획인 곧 주거의 규모와 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성태원(2003), 『서울 삼청동35번지 도시한옥주거지 필지구획에 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권 9호, p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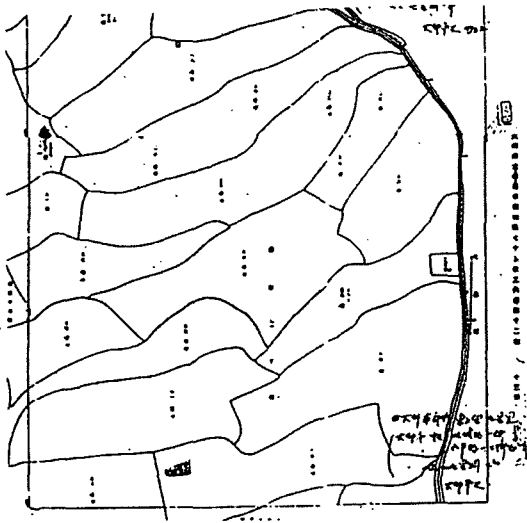


그림 2. 1910년 작성된 서문밖의 지적도



그림 3. 1929년 폐쇄된 서문밖의 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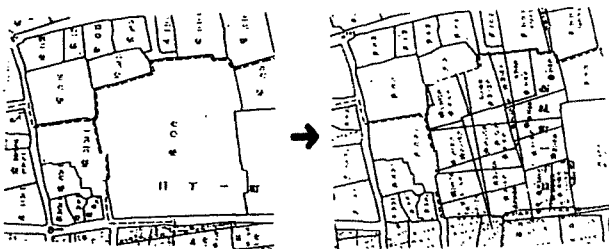


그림 4. 대형필지의 분화과정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1970년대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특성을 보이다가 1980년도 후반기에 들어 거주자의 요구가 커지고 도시거주자의 생활에서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골목길의 정비 필요하게 되었으며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불량도시 가로망의 정비가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필요를 가짐에 따

라 동서와 남북을 관통하고 있는 긴 골목길이 차량이 통행 가능한 도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렇게 도시의 가로망이 정비됨에 따라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과거의 도시형 한옥주택 형식이 가로변을 따라 급속히 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상업용도의 건물로 탈바꿈함과 동시에 보다 세분화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연구대상지의 초창기의 필지분화형태는 필지의 대부분에 걸쳐서 고르게 커다란 필지가 가구의 증가로 인해 세분되는 형태를 보였으나 가로망의 정비와 더불어서 가로변을 중심으로 급속히 세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여 많은 사람들의 거주욕구를 증가시킴으로 인해 세분화되고 있는 결과로 보여지며 이는 주요 가로망에 접하지 않은 다른 대지의 분화가 느린 것과는 좋은 비교가 된다.

특히, 가로망 주변의 한옥주거지는 거의 모두 해체되어 콘크리트 건물로 다시 지어졌으며 그나마 남아 있는 것도 골조만 유지하고 있을 뿐 내부의 구조는 모두 해체된 채 가로변으로 점포를 형성하고 있어 한옥의 유형이라고는 볼 수 없는 형편이다.

한편, 이지역의 필지 분화 형태는 1930년대까지는 급속도로 필지의 분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후 1980년대까지는 정비된 가로 주변으로 필지의 분화와 가구의 개조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필지가 다시 통합되어 개발되는 등 새로운 개발의 형태로 필지가 나누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30년대까지는 도시로 밀려드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가옥들이 주택공급업자들을 통해 공급되었는데 이때의 대부분의 집들은 기존의 거대필지를 나누어 집을 지어 팔거나 큰 규모의 집을 분할하여 소규모의 단독주택으로 팔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향들은 당시 대가족 체제가 신문명이 들어오면서 핵가족화의 초기현상으로 변화해가는 결과로 받아들여도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재 대구의 서성로 지대의 한옥지구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발전해 가던 1970년대에 시대에 맞춘 변화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1972년의 행정적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사회적 요인이 도시 주거지의 장소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척 크다.

3. 가로의 변화

도로는 공공의 소유이므로 쉽게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은 채 한번 형성된 도로는 그 생명력이 길어서 연장, 확장 등으로 변하기에 역사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도시 형태의 구성 요소 중 도시 조직을 가장 선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도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도로의 형태는 기존 가로체계 뿐만 아니라 필지의 크기와 형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이 지역의 건축물의 입지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⁶⁾.

<그림 5>와 같이 연구 대상지의 가로는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접근로의 성격을 갖는 것과 각 주호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도시차원에서는 격자형의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블럭 내부에서의 가로 체계는 격자형과는 달리 자생적으로 나타난 가지형으로 다소 불규칙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본 대상지에서는 각각 단위 주거로 자동차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격자형의 가로와 블럭으로 진입하는 몇몇의 가로에서만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세가로는 전체 지역을 연결하고 있다. 즉 블럭의 외곽도로와 일부의 가로만 자동차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이곳에서 세가로로 연결되어 각 주거 단위로 진입할 수 있다.

또한 <그림 6>과 같이 대상지 일대는 과도한 차량의 보급 및 상가의 침투로 인해 기존의 진입로와 가로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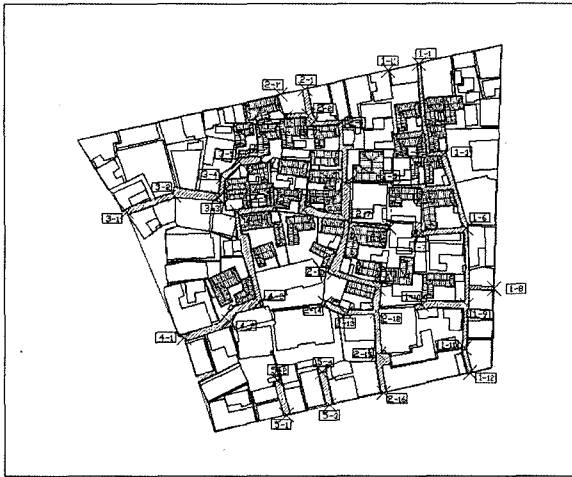


그림 5. 대상지의 가로체계



그림 6. 가로변 상업시설의 침투

6) 필지와 건물과의 관계에서 볼 때 필지는 기반요소이고 건물은 충전 요소이다. 필지라는 그릇에 담기는 건축물은 상당한 임의성을 가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필지의 형태가 부정형일 경우에는 건물의 배치 및 설계에도 그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어 결과적으로는 도시경관의 부조화를 초래한다. 서상국(1987) 『필지가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조경학석사학위논문, p36.

이들 차량을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거와 업무라는 상이한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일반적인 주거지의 경우와는 다른 가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단독 주택지의 경우 길가의 상점은 근린주거시설이 대부분이고 길 귀퉁이의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주택으로 둘러싸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이 지역의 가로변에는 대부분이 상업 점포로서 식당과 공구 상회, 철물점, 화공 약품점, 오토바이 부속상, 여관, 은행, 사무실 등이 많으며 이들 중 근린시설은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III. 사회적 특성 변화

1. 생활공간의 변화

본 연구 대상지의 거주지의 거주밀도, 주택 소유형태에 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주택 당 거주 가구수

한 주택 당 거주하는 가구수를 조사한 결과 1가구만이 거주하는 주택이 43.5%로 나타났고, 2가구가 26.1%, 3가구 이상이 30.4%로 나타나 한옥의 특성상, 그리고 노부모가 자녀를 출가시키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은 방을 도심지 근로소득자들에게 전세 혹은 월세기의 형태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택당 거주가구수

구분	1가구	2가구	3가구	4가구	기타	합계
계	20	12	9	3	2	46
%	43.5	26.1	19.6	6.5	4.3	100

2) 주택 소유형태⁸⁾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 소유율이 69.6%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설문 조사시 주택의 측량 및 설문의 용이성 때문에 설문의 대상자를 가구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 대상지의 주택 소유형태는 한 주호당 가구 수에서 추출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다세대가 거주시 한 세

표 2. 주택당 주거형태

구분	자가	전세	월세	기타	합계
계	35	11	2	1	46
%	69.6	23.9	4.3	2.2	100

7) 이러한 세입을 통한 경제성을 얻기 위해 마당부분을 지나치게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이로 인해 내부공간이 더욱 폐쇄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세입자들을 위한 욕실 및 화장실 그리고 부엌 등의 시설이 부족한 상태여서 이들이 생활하기에 매우 불편한 상태로 주거환경의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었다.

8) 주택의 소유현황의 조사시, 설문자체는 한옥 주거지의 거주하고 소유한 주인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통계 자체에서는 자가 소유자가 많이 나왔으나, 월세 혹은 전세 등의 세입자 가구수를 함께 조사하였으므로 소유현황의 계산에 있어서 정확한 산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대가 이 집을 자가로 소유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즉, 실질적인 조사대상자 46개중 전체 거주 가구수는 93가구로 46가구를 제외한 47가구는 전세, 월세 혹은 이와 비슷한 형태로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옥 거주자중 자가는 표에서 나타난 69.6%가 아닌 50% 이하인 것으로 말할 수 있다.

3) 주택의 증개축 및 보수현황

우리나라 거주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넓은 거실보다는 넓은 안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 대상지의 경우 대부분이 안방을 뒷마당으로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전통 한옥의 경우 처마선이 약 1m 정도 도출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것을 지붕으로 삼고, 기존 기둥을 그대로 둔 채로 뒷마당 부분까지 증축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내부에서는 안방을 넓게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외부에서는 보기에 아주 훙할 뿐 아니라 벽체 마감도 석회 등으로 칠해서 외관상 상당히 불쾌감을 주고 있다.

표 3. 한옥주거의 실별 수리 및 보수

구분	부엌	방	지붕	대청	화장실	창고	기타	계
계	21	18	18	12	12	10	1	92
%	20.83	19.57	19.57	13.04	13.04	10.87	1.09	100

<표 3>은 대상지역내 한옥주거의 보수 및 수리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부엌의 경우 전체 보수 및 수리내역의 20.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방, 지붕, 대청, 화장실, 창고 등 대부분의 생활공간들이 골고루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 그리고 안방의 경우는 대부분 실내와 실외의 연결로 인한 방의 확장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청의 보수건수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대청 역시 대청과 외부공간의 연결, 즉 공간의 확장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와 반대로 공간의 축소가 일어난 곳은 부엌이다. 부엌에서 난방과 취사를 행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취사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의 난방의 기능은 욕실 보일러실 등 다른 용도로 변화되었거나 안방에 통합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용도변경의 사례는 대청에서도 일어났는데 대청공간이 내부화되고 식사실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나타났다¹⁰⁾.

<표 3><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부의 가구에서 증개축 그리고 지속적인 개보수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

9) 선행연구에 따르면 양동마을의 경우 수리하기를 원하는 대상 중 가장 응답빈도가 높은 것은 화장실과 욕실로 나타났다. 강동진(2003) 『문화재보호법과 관련된 양동마을 주민의식 변화』 한국조경학회지, 31권 3호.

10)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대청의 변화는 기존의 격식을 갖춘 전통주택에서는 대체로 마루 부분이 온돌방과 대등한 면적을 점하였으나, 근래 대청에서 일어났던 제사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일상적인 점유도가 떨어지는 대청의 용도가 바뀌는 것으로 보인다. 한필원(2005) 『양동마을 傳統住宅의 生活空間 變化가 外觀에 미친 영향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월 10호.

표 4. 한옥주거 개조

구분	난방 ¹¹⁾	천장 누수	방확장	부엌 개량	대청 사시	보일러 실	기타	계
계	19	18	11	4	3	2	2	59
%	32.20	30.51	18.64	6.78	5.08	3.39	3.39	100

다¹²⁾. 그리고 증개축 및 보수현황의 조사에서 대부분의 설문 응답자가 보수현황 및 내용을 거의 기억에 의존해서 조사된 점과, 이사 오기전의 보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증개축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 조사자료 보다 훨씬 더 많은 증개축 및 보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¹³⁾.

2. 주민의식의 변화

설문자의 남,여 비율은 남자가 17.65%, 여자가 82.35%로 다소 여자가 많은 편이었고, 남녀에 따른 애착심, 동네일에 대한 관심, 동네일에 대한 참여도에 대한 유의도는 각각 0.671, 0.352, 0.157로 남녀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령별에 따른 애착심, 관심도, 참여도에 조금이상의 애착심과 관심도와 참여도를 보인 사람은 20-30대가 42.89%, 40-50대가 27.27%, 60대 이상이 53.58%로 나타났다. 연령별에 대한 유의수준은 각각 0.632, 0.873, 0.889로 여전히 크게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취학자녀의 유무에 관한 동네일에 대한 관심도는 유의도 0.042로 유의수준 95%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사 대상지내 설문 응답자 연령의 평균은 54.58세이며, 동거 가족 수는 평균 3.6명으로 비교적 핵가족화 되어 있으며, 거주기간은 전체평균 10년 9개월로 나타났다.

주택소유형태로는 자가가 30명(58.8%), 전세가 15명(29.4%), 월세가 5명(9.8%), 기타가 1명(2%)로 나타났다.

1) 거주지역의 애착심

대구의 경우 매우 애착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8.7%(4명), 경주의 경우 52.38%(11명)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한 약간 애착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대구의 경우 34.78%(16명), 경주의 경우 28.57%(6명)이었다. 다시

표 5. 거주지역의 애착심

구분	계(%)	전혀애착 없음	애착없음	보통임	애착있음	매우애착 있음
대구	46(100)	2(4.35)	13(28.26)	11(13.91)	16(34.78)	4(8.70)
경주	21(100)	0(0.00)	0(0.00)	4(19.05)	6(28.57)	11(52.38)

(Chi-Square test : Value=19.460, DF=4, Significance=0.001)

11) 대부분의 주택에서 난방방식이 구들에서 기름보일러로 바뀌었다.
12) 설문 대상자중 몇몇은 인터뷰과정에서 매년 개보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13) 관찰조사 및 가구 실측조사 시 건물의 모양새로 증개축 및 보수의 현황을 유안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가구에서 방의 확장이 시공되었고, 현대화된 생활양식에 적용하기 위한 화장실, 욕실, 부엌의 보수가 확인되었다.

말해서 애착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대구의 경우 42.88% (20명)로서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경주의 경우 80.95%(17명)로 나타났으며 살기에 애착심이 거의 없다 혹은 전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은 대구의 경우 32.61% (15명)나 되었으나 경주의 경우는 한명도 없었다.

2) 동네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동네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분석해보면 대구의 경우 매우 관심이 많다고 대답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고 조금 관심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34.78%(16명)로 나타났고 경주의 경우 33.33%(7명)이 매우 관심이 많다고 대답했고 조금이라고 관심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47.62%(10명)로 동네일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대구의 33.33%에 비해 경주는 80.95%(17명)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6. 동네일에 대한 관심도

구분	계(%)	전혀관심 없음	관심없음	보통임	관심있음	매우관심 있음
대구	46(100)	6(13.04)	14(30.43)	10(21.74)	16(34.78)	0(0.00)
경주	21(100)	0(0.00)	2(9.52)	2(9.52)	10(47.62)	7(33.33)

(Chi-Square test : Value=22.526, DF=4, Significance=0.000)

3) 동네일에 대한 참여도

동네일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를 분석해보면 대구, 경주의 경우 둘다 적극적으로 앞장선다고 말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고, 가끔은 참석한다고 말한 사람은 두 사례지역에서 23%로 비슷했으나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은 대구의 경우 34.78%(16명)이나 경주의 경우는 한명도 대답하지 않았다.

표 7. 동네일에 대한 참여도

구분	계(%)	전혀참여 하지않음	참여하지 않음	보통임	참여함	적극적으로참여함
대구	46(100)	16(34.78)	15(32.61)	3(6.52)	11(23.91)	1(2.17)
경주	21(100)	0(0.00)	11(52.38)	4(19.05)	5(23.81)	1(4.76)

(Chi-Square test : Value=11.246, DF=4, Significance=0.024)

4) 동네의 전체적인 분위기

동네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살기에 좋다고 대답한 사람은 대구의 경우 매우 살기 좋다고 대답한 1명을 포함해서 30.43%(14명)로 나타났고 경주의 경우 42.82%(9명)가 살기 좋다고 대답했으며 33.33%(7명)가 아주 살기 좋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살기에 나쁘다고 대답한 사람은 대구의 경우 53%(27명)로 반 이상이었으나, 경주의 경우는 한명도 없었다.

표 8. 동네의 전체적인 분위기

구분	계(%)	살기매우 나쁘다	살기나쁘다	보통임	살기좋다	매우살기 좋다
대구	46(100)	6(13.04)	19(41.30)	7(15.22)	13(28.26)	1(2.17)
경주	21(100)	0(0.00)	0(0.00)	5(23.81)	9(42.82)	7(33.33)

(Chi-Square test : Value=24.667, DF=4, Significance=0.000)

3. 분석 결과

평면의 유형과 한옥주거지의 개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옥주거 평면의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것은 주민들의 생활양식이 점차 서구화 되어감에 따라 한옥이 이들의 생활양식을 만족시켜주지 못함으로써 주거지로서 부적절해졌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서 이들 한옥의 노후화를 들 수 있다.

본 조사대상지의 경우 동네에 대한 애착심, 관심도에서 약간 이상의 애착심과 관심도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각각 42.88%(20명), 34.78%(16명)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서 동네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나타난 나쁜 점으로는 소음 7명, 골목의 혼잡 6명, 공기의 오염 6명, 시장이 멀다 5명, 골목이 좁다 4명, 주차가 힘들다 4명, 주위의 교통 혼잡으로 어린이에게 위험하다 4명, 주민들이 폐쇄적이다 4명으로 나왔고 기타 응답으로 악취, 미개발, 프라이버시 미 확보 등이 각 1명이 나왔다.

그리고 좋은 점으로는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사람들의 인심이 좋다가 8명(15.7%)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명(37세)을 제외한 7명이 59세 이상의 노인들로서 비교적 10년 이상(평균거주연도 12.5년) 이 조사대상지에서 거주한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 교통이 편리하다 1명, 시내가 가깝다가 4명 그리고 비교적 안전하다가 1명으로 나왔다.

조사 대상지의 설문내용 분석결과 비교적 주거지로서는 열악한 환경으로 판단되며, 가장 주된 원인은 C.B.D의 확장에 따른 상업시설을 침투로 인한 심각한 교통의 혼잡과, 이 시설과 차량으로 인한 소음으로 판단된다

대구와 경주의 비교 분석결과 조금의 애착심을 보인 사람은 각각 32.61%, 80.95% 관심도 부분에서는 각각 34.78%, 80.95%로 나타났고, 동네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살기에 좋다고 대답한 사람은 각각 30.43%, 76.15%로 나타났다. 거의 비슷한 지리적 여건과, C.B.D와 비슷한 거리조건, 규모에서 대구의 경우는 경주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이유로서는 가장 먼저, 대구는 주거지 내로의 상가 침투가 있었던 반면 경주의 경우는 C.B.D의 확장이 아직까지는 주거지내로 침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¹⁴⁾. 또한 대구는 시장이 먼 것이 아주 큰 단점으로 작용하였는데 경주의 경우 약 300m 거리에 대규모 재래식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대구의 과도한 차량보급 현상에 비해

14) 예로서 본 조사대상지의 경우 가로변에는 대부분이 소음을 많이 유발하는 상업 점포로서 식당과 공구점, 철물점, 화공 약품점, 오토바이 부속상 등이 많으며 이들 중 근린시설은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경주의 경우 길가의 상점은 근린 주거시설이 대부분이고 길 귀퉁이의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주택으로 둘러싸여 아직은 C.B.D의 확장으로 인한 상업시설이 주거지에는 침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주의 경우는 아직도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VI. 결론 및 제언

현재의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일대에 남아 있는 한옥주거지는 1910년경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부터 우리의 전통적인 사회구조인 마을공동체적인 요소를 갖기보다는 많은 주민을 수용하는데 급급한 형태를 보이며 전개되었다. 이러한 특성의 사회적인 요구가 대구의 도시형 한옥주거지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이 지역은 주민이 거주하기에나 생업을 영위하기에 모두 많은 제약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건축관련 법령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목조건물에 대해서 규제일변도였다가 최근에야 수정되었고 보존의 개념에 있어서도 보존지역이라는 지정만 하면 된다는 식의 행정 편의적 발상이 전통 한옥지구의 쇠락을 가져온 원인이 된다고 하겠다.

우리의 전통주거지의 개념과 일맥상통한 상호공동체적 공간을 갖고 자연에 친숙한 개념을 가져 현재에도 좋은 사회적 유대관계와 쾌적한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는 독일의 하노버와 카셀, 튀빙겐의 주택단지와 스위스 취리히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옛 부터 내려오는 좋은 전통과 현재의 기능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면서 자연과 친화되는 공동체적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우수한 주거개념인 환경 순응적 거주지(ecological houses)를 오히려 지금에 와서 파괴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우리가 사회적 환경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사회적 환경이란 시간과 사회문화적 요소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심과 융통성 있는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대구시의 중구 서성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단지 도심과 가깝다는 지역적 조건만을 내세워 중심상업지구로 변경된 오늘은 법규적 제한으로 말미암아 주민 스스로조차도 불량주택을 개선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은 반드시 재고되어야만 하며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 주변의 가구들은 그들의 경제적인 성취욕 때문에 아주 쉽게 현대적 건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지구내부의 한옥주택들도 아주 천천히 해체되거나 내버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도미노 현상의 이유

는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거주자의 상대적인 경제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막고 도시의 한옥지구를 보존하는 방법으로는 법령에 있는 인센티브제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필요하다면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의 수요에 따를 수 있는 도로와 주차장을 정비하는 것도 주요한 일이 된다. 작은 유닛을 설정하고 컬데삭(cul-de-sac) 도로를 도입하여 그 정점에 공동공간을 부여한다면 한 단위거주지에서 보다 활발한 이웃간의 사회적 유대가 이루어질 수 있어 과거의 우리 마을의 사회적 관계를 강화시키는 공동체적 전통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차량에 대한 소유가 보편적인 오늘날, 공동주차장은 한 집단의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으므로 과거의 빨래터나 우물과 같은 공동지역으로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적정한 대지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지를 재정비하는 일도 아주 중요하다. 더 이상 전통 한옥지구가 불량거주지이어서는 안되며 생태적으로 우수하고 에너지 보존차원에서 앞서나가는 주택단지로 바뀌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1. 한필원(2005), 양동마을 傳統住宅의 생활공간 變化가 外觀에 미친 영향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권 10호.
2. 윤재웅(2003), 대구지역 근대한옥의 공간 구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4권 6호.
3. 최동혁(2005), 서울 남촌지역 가로 및 건물특성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권 2호.
4. 성태원(2003), 서울 삼청동35번지 도시한옥주거지 필지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권 9호.
5. 송미배(2001), 都市型韓屋의 内外部空間構成 變化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 4호.
6. 박철진(2002), 1930年代 京城府 都市型 韓屋의 社會·經濟的背景과 平面計劃의 特性,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권 7호.
7. 윤효진(2004), 都市型韓屋 分布의 變化特性,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권 4호.
8. 하재명(1996), 대구시 도시형 한옥의 평면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5호.
9. 하재명(1997), 도심 한옥주거지 개발방향 모색과 설계지침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 1호.
10. 김영욱(2004), 서울 북촌의 공간구조 분석을 위한 방법론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권 9호.
11. 송인호(1990), 도시형한옥의 유형연구, 서울대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接受: 2006. 1. 10)